

이동화(李東華)

일본 예찬

일본을 예찬하라.

서양승배는 이미 과거의 꿈나라 이야기가 되었다.

세계에서의 일본의 위압적인 모습을 보라.

국제연맹의 탈퇴는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세계는 일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아메리카는 어떤가.

저 대함대는 쓸데없이 태평양으로 회항해서 일본에 허무한 시위를 하는 데
그치고 서둘러 대서양으로 귀항을 표명했다.

이것이 일본의 무위(武威)에 대한 항복적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그 여성적이고 비굴한 정략(政略)을 보라.

소비에트 러시아와 결탁해 일본에 대한 협격(挾擊)을 감행하려 한다.

게다가 그 소비에트 러시아는 어떤가. 만주 북쪽의 국경 가까이에 20 여 사단을
집중시켜 불과 두세

사단도 되지 않는 일본군의 위압에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어떤가.

인도에 대한 일본 상품의 진출은 대영국의 심장부 랭커셔에 군사적(窮死的)
비명을 지르게 하고 있다.

공장에서의 영국인 6 명의 작업을 일본인은 2 명의 작업으로 처리한다.

일본인의 이 힘.

이런 사실은 일본의 세계경제에서의 군림적(君臨的) 상징이다.

지금 일본 상품은 세계의 모든 상품을 차버리고 홍수와 같이 세계의 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예찬하라. 일본을. 세계의 태양을.

그리고 조선이여 비상하라. 태양을 향하여.

사나운 독수리는 눈을 뜨고 태양을 향해 돌진한다고 한다.

조선이여. 태양을 향한 사나운 독수리가 되어 비상하라

일본은 세계의 태양이다.

뜨거운 태양의 빛은 그 정신력에 있다.

묘행진(廟行鎭)의 3 용사의 호용과감(豪勇果敢)한 행동을 생각하라.

인간이 수류탄이 되어 적의 철조망을 폭파한 것이다.

정신일본의 극치. 노기(乃木) 장군의 피는 여기에도 흐르고 있다.

음력 17 일의 달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는 밤이었다.

돌격진지는 적의 100 미터 지점부터 개척되었다. 파괴통(破壞筒) 토낭(土囊)
준비를 마치고 파괴 전원 36 명은 은밀히 전진하기 시작했지만, 적이 눈치를
채고 맹렬하게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

총 공격시간인 5 시 30 분은 눈앞에 다가왔다.

달 그림자가 희미해지면서 동쪽 하늘이 붉은 색을 띠기 시작했다. 달이 밝으면
만사가 헛일이다.

마지막 돌격이다.

전진 명령이 떨어졌다. 20 미터 앞에는 정면과 좌우에 엄폐물로 가린 기관총이 3 문, 불을 뿜으며 사격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줄줄이 쓰러져갔다. 한 병사가 홀로 대나무로 된 파괴통에 점화해서 어깨에 메고 뛰어넘었지만 수십 미터 달린 뒤 애석하게도 쓰러지고 말았다.

“마지막 파괴다.”

피를 도할 것 같은 비통한 외침이다.

이 소리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이 세 병사가 4 미터의 대나무 파괴통에 점화한 뒤 세 명이서 들고 뛰어

나갔다. 이 경우 이들 세 명은 폭탄과 함께 뛰어들이지 않으면 절대 보병로를 개척할 수 없을 테니 자신의 육체

를 폭파해서 철조망을 파괴하자는 약속을 미리 한 것이다.

세 명이서 어깨에 둘러멘 이유는 누가 한 명 쓰러지더라도 나머지 두 명이 뛰어들이고, 두 사람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마지막 한 명은 철조망을 폭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병사는 철조망에 부딪칠 때까지 한 발의 적탄도 맞지 않고 완전하게 목적을 수행했다. 동시에 큰

폭음이 일어나고 커다란 살덩이가 쿵 하며 8~9 미터나 솟아오른 뒤 떨어졌다.

세 병사가 수류탄이 되어 철조망을 폭파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다.

“돌격로가 뚫렸다.”

하는 함성이 일어났다. 일본군은 중국군을 향해 쇄도했다.

조선이여. 이것이 일찍이 그대와 같은 선조로부터 피를 나눈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조선이여. 그대의 혼은 비참한 물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계의 태양, 일본을 낳은 어머니인 땅을 부러워한다.

기후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정신을 타락시킨 하바나 군도(群島).

동양의 하바나 군도-조선.

거기서는 조선인이 열등화 되어 있다.

풍토의 혜택을 입지 못한 조선.

일본은 섬나라이다. 섬나라이기에 산의 나라이고, 산의 나라이기에 변화가 풍부하다.

일본은 섬나라이기에 바다의 민족이고, 동시에 산의 민족이며 늘 산과 바다에 도전한다.

상무의 기풍은 여기서 일어난다.

일본의 경도는 남북으로 길다. 남북으로 긴 나라는 동일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은 이론보

다 실행으로 치닫는다.

그것이 일본의 모습이다.

바다의 변화. 산의 변화. 일본은 자연으로부터 실로 많은 것을 배운다.

일본인은 미술에 대칭(symmetry)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양인이 트럼프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인은 화투의 쪽정이 꽤까지도 같은 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변화를 좋아하는 일본인의 성격은 일본의 자연계의 반영이다.

일본인의 머리는 복잡하고 치밀하고 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래프카디오 현은 일본을 노래했다.

“여행을 하면서 나아갈수록 매일매일 토지의 경치 아름다워졌다……”라고.

지중해의 다도해를 예찬한 바이런이,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본다면 “

자연의 궁전이어”라는 절찬

을 다도해에서 거두어 들었을 것이다.

어머니인 대지의 혜택을 입지 못한 조선.

거기에는 산이 있다. 그러나 황량하게.

거기에는 강이 흐른다. 그러나 황량하게.

거기에 태어나는 초목에는 생기가 없다.

새소리는 쓸쓸하다.

사람의 혼도 비참한 몰골이다.

시인이 태어나지 않는 조선.

이것이 조선의 숙명일까.

나는 일본을 낳은, 어머니인 땅을 부러워하다.

<출전 : 李東華, 「緒, 朝鮮人への兵役の義務, 日本禮讚」, 『國防と朝鮮人』,
東京: 黄人社, 1933년, 1~3 쪽, 53~70 쪽, 96~104 쪽>